

2. 일반사업비

1) 한·미 FTA 협동연구

- 한·미 FTA 협상 결과 및 그 대응 방안 모색

■ 연구책임자

이 홍 식 부연구위원, 송 영 관 부연구위원

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

- 2007년초 한·미 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, 협상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경제적 예상효과 등을 분석하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 협상결과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왜곡된 반대론자들의 거짓되고 왜곡된 논리를 바로 잡으며 국회의 동의비준 및 정부의 향후 대책 수립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.
- 한·미 FTA가 정치·경제·사회 등 모든 분야, 특히 경제부문에서는 모든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의 모든 관련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동연구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.

■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

- 현재까지의 모든 한·미 FTA 관련 연구는 협상이 종결되기 이전에 예상시나리오에 근거한 경제적 타당성 및 효과를 분석하였으나, 본 연구에서는 한·미 FTA 협상이 종결된 상황에서 협상결과에 기초한 경제적 효과 분석이라는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음. 특히, 그동안 지속되었던 반대론자들의 거짓된 논리와 왜곡을 타파하고 그들의 논리를 종식시키는 데 좋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.
- 기존의 한·미 FTA에 대한 연구는 이홍식, 이준규(2005) 「Feasibility

and Economic Effects of a Korea-U.S. FTA」, 박순찬·강문성(2004) 「한·미 FTA의 무역 및 투자 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」, Cheong and Wang(1999) “Korea·U.S. FTA: Prospects and Analysis”, Choi and Schott(2001) “Free Trade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?”, USITC(2001) “U.S.·Korea FTA” 등이 있음.

구분		선행연구와의 차별성		
		연구목적	연구방법	주요 연구내용
주요 선행 연구	1	-과제명: 『Feasibility and Economic Effects of a Korea-US FTA』 -연구자(년도): 이홍식 외(2005), -연구목적: 한미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대응방안을 제시	-문헌조사 -CGE모형 분석 -탄력성분석	-한미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 -한미 FTA의 정치경제학적 의미
	2	- 과제명: 한·미 FTA의 무역 및 투자 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 - 저자: 박순찬, 강문성 (2004) - 연구목적: 한·미 FTA이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무역 및 투자창출 효과 분석	-중력모형	- 한·미 FTA의 무역에 미치는 효과분석 - 한·미FTA의 투자에 미치는 효과 - 한·미 양국의 FTA정책 분석
본 연구		-한·미 FTA 협상 결과에 기초하여 각 산업별 영향분석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관련 연구기관 협동 연구로 수행	-문헌연구 -정성 및 정량분석 (연구기관별로 다양한 연구방법 사용 가능)	-본 연구에서는 한·미 FTA 협상 타결후 협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기초한 경제적 예상효과를 분석하고자 함. -농업, 서비스업 및 제조업, 해양수산업 등 각 산업부문별로 한·미 FTA 이행에 따른 경제적 예상효과를 추정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함.

■ 연구추진방법

□ 한·미 FTA에 대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 연구 과제이므로, 협동연구기관의 전문연구역량을 가능한 한 활용하여 연구의 질(quality)과 신뢰성을 제고

- 한·미 FTA 협정문을 토대로 문헌 분석
- 전문가 초청 세미나
- 출장 통한 FTA 협정 당사국들의 정보 수집
- 통계 가용한 농림수산업, 제조업 및 일부 서비스 분야에서는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을 함께 수행하고, 통계가 미비하거나 불충분한 일부서

비스, 노동 및 여타분야는 가능한 통계자료 분석 및 정성분석 위주로 수행함.

■ 주요 연구내용

□ 1차년도

- 「한·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」와 「Feasibility And Economic Effects Of Korea-US FTA」

- 한·미 FTA에 따른 농업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, CGE 분석 및 NAFTA 사례연구 등의 방법론을 활용했음
- 한·미 FTA의 거시 경제적 분석과 아울러 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효과, 한·미 FTA의 주요 예상쟁점, 미국의 FTA 전략 속에서 한국의 위치, 그리고 한·미 FTA의 정치경제학적 의미 등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하였음.
- 분석의 결과로 우리 농가의 피해 예상됨. 하지만, 민감품목의 선정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.
- 그리고, 한국의 실질 GDP 증가, 후생수준 향상, 서비스 산업의 경쟁요소 도입 및 경쟁력 확보를 통한 우리 경제구조의 고도화와 생산성향상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음.

□ 2차년도

- 한·미 FTA 서비스부문 경쟁력 비교 및 협상의 시사점

- 양국간의 서비스 교역을 분석하고 FTA 타결과 더불어 한국이 나아

갈 방향 연구

- 서비스 부문별 교역내용의 비교, 분석 및 무역장벽의 검토로 한·미 FTA 서비스 부문 협상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을 예상함.
- FTA에 따른 생산성 증대효과 분석: 한·미 FTA를 중심으로
 - 한·미 FTA의 생산성 증대 효과에 대한 연구
 - 한·미 FTA의 중장기적 생산성 증대효과를 반영하여 보다 심층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한 한·미 FTA의 정확한 이해를 구할 것을 예상함.
- 한·미 FTA 농업분야 쟁점 분석과 발전대책
 - 한·미 FTA 농업분야의 쟁점 분석 및 협상 대응 전략의 제시
 - 협상 전략의 제시로 정부의 협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, 향후 주요 품목별 보완 대책 및 구조조정을 통한 발전 대책의 제시를 예상함.

□ 3차년도

- 한·미 FTA 협상 내용 및 평가
 - 기존 예상과의 차이점 및 결과의 의미를 분석
 - 미국과 FTA를 체결한 다른 국가들과의 협정 내용 비교 및 분석
- 한·미 FTA에 따른 분야별 경제적 예상효과

- 기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시 그에 따른 경제적 예상효과 분석
 - 경제적 효과 이외에 정치 사회적 효과도 분석
- 향후 정책과제
- 협상 결과에 따른 향후 정책 방향 제시

■ 기대효과

- 한·미 FTA 협상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, 정부, 기업 및 일반국민이 한·미 FTA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협정의 이행과정에서도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. 특히, 반대론자들의 거짓되고 왜곡된 FTA에 대한 훌륭한 반박자료로 이용이 가능할 수 있음.
- 한·미 FTA 협상결과에 기초한 경제적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를 국회동의비준과정 및 향후 대응정책(산업구조조정 포함)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.

■ 협동연구기관 및 연구진 구성

-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련 연구기관, 정부 유관 부처, 국내외 교수진과 협동연구

■ 연구기간(3/3년차)

- 2007년 3월 ~ 2007년 11월

<연차적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(양식)>

협동연구사업명	한·미 FTA 협상 결과 및 그 대응 방안 모색		
총사업기간	2005. 1. 1. ~ 2007.12. 31.	당해 사업기간	2007. 1. 1. ~ 2007.12. 31. (3/3년차)
<p>(연차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이유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연구 결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차년도 연구에서 FTA의 한국 농업 파급효과 및 경제적 이득에 대한 연구 완료됨. ○ 2차년도 연구에서는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비교 및 협상의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생산성 증대 효과 및 농업분야 쟁점 분석과 발전대책을 수립하는 연구가 진행됨. <p><input type="checkbox"/> 3차년도 상반기 내에 한·미 FTA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 결과에 따른 경제적 성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따라서 타결된 결과물에 대한 분야별 평가 및 예상 경제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, 이는 협상이 타결이 미국 대통령의 무역촉진권한이 만료되는 내년 상반기내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함. ○ 한·미 FTA 협상의 의제나 그에 따른 개방의 정도가 기존 연구와 실제 결과와는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3차년도 연구는 필수적임. 특히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반대론자들의 거짓된 주장을 효과적으로 타파할 필요가 있음. 			